

그 날에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을 흘리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 고리와 예복과 겹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니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3:13~4:6]

성탄 이전 4주간을 흔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구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예언이 나옵니다. 성탄절 이전까지 네 번에 나누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잘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은 요한계도 구약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 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긴 탄식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이러시죠. 자기 백성을 보고 그래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어떻게 된 내 백성은 자기 주인도 못 알아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지만 진심은 잘못했다 소리 한 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리라, 복을 주리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책망을 하다보니 책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름답게 회복되는 약속이 늘 덧붙여 나와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는 책망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이야기가 따라와요. 그래서 책망과 회복은 한 덩어리로 묶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단락 가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주에 징계하겠다는 말씀과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그 다음 한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선지자가 무섭게 책망하다가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이야기가 항상 붙어 있어요.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예컨대 왕이나 대통령이 한번 해 보겠다고 선포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떡해요? 그래도 수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대통령 보셨어요? “지난 번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잘못된 줄 변연히 알지만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끌고 가면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말을 바꾸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물며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고선 돌아서서 “회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

씀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분이 심판하겠다고 한번 선언하시면 단칼로 끝내는 게 맞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단칼로 심판하신 예가 없어요. 참고 참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디서부터 그랬을까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렇다면 따먹는 시간에 피를 토하고 죽어야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 먹고 피를 토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얼마나 더 살았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몇 살 때 따 먹은 것인지 모르니까요.

뱀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했었어요? “내가 안 죽는다 그랬죠? 보세요. 안 죽잖아요, 내 말 맞잖아요!” 뱀은 채면 세울 것 다 세우고 반면에 하나님은? 말의 권위가 다 떨어지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사는데 어떡해요?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하나님은 한 칼에 날릴 마음이 없으신 분이세요. 심판하겠다고면서도 한 칼에 날리지 아니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이사야 시대까지 온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 보면 “셋 만에 나와라, 셋 만에 안 나오면 쏜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예요? “셋” 그리고 “빠방” 하고 끝나잖아요. 흉악범이나 인질범일 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런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났어요. 아이하고 싸우면서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반...” 이러면 평생 못 이겨요. 아이가 벌써 알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져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말났다, 죽는다, 혼난다.’ 이러면서 여태까지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처럼 단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삼고 자녀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러 번 반복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또 회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징계를 선포하다가 또 회복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메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 공갈도 치고 야단도 치다가 결국은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13, 14절은 고관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라고 합니다. 심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밥 먹잖아요? 아버님은? ‘밥 먹고 사신다’ 이러면 상놈입니다. 어른들은 진지 드시고 사세요. 같은 밥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밥>, 아버지가 드시는 것은 <진지>, 임금님이 드시는 것은 <수라>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검사나 재판장들이 죄수를 불러 놓고 묻고 따지는 것은 <심문>이에요. 임금님이 죄수를 불러다 묻는 것을 <국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죄수를 직접 불러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심문요? 신분 에 어울리지 않아요. 심문은 저 밑의 누군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조사하셨다면 그래도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국문이에요. 개정성경이 쉬운 단어로 바꾼다고 심문이라고 하니깐 느낌이 확 떨어지잖아요.

국문 혹은 친국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왕이 친히 심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문이 왜 무섭죠? 국문이 제일 무서운 것은 재판이 잘못돼도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임금님께 하소연이라도 하겠지만 임금님이 친히 조사해서 “너, 죽어.” 이러면 아무리 억울해도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임금님이 재판을 시작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백하고 죽든지, 아니면 고문으로 죽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국문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국문하겠다고 나서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고관들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옛날 군에서 하던 이야기입니다. 일등병, 이등병은 권뿔 도둑놈, 소위, 중위, 대위는 권총 도둑놈, 소령, 중령, 대령은 지프차 도둑이던가? 그랬어요. 그 애고 거기서 끝났는데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별 하나는 빼고 소장, 중장, 대장은 나라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고관들을

불러서 심문하겠다는 뜻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더니 이 나라를 팔아 먹었다는 거예요.

권력의 횡포? 참 무서워요! 억울하게 죽은 게 틀림없다 싶어도 권력의 횡포 앞에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말 한번 제대로 해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권력자들의 범죄는 대체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당하는 사람만 억울해서 화병으로 죽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청와대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 하겠나?' 했거든요. 이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국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권력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으면 여자들도 명달아 그래요. 권력자들의 그늘에 있는 여자들, 부인이고 딸이고 관계없이 그 권력자들과 연결돼 있는 여자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성적인 매력, 입에 담기 참 곤란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을 전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여겨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이런 성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짓은 잘 하지 않는데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 그늘에 있는 여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화장을 했더라도 정수리에 딱지가 앉아 있으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 머리에 버짐이 나면 무슨 약 발랐어요? 된장을 발랐어요. 딱지가 앉으면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겨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권력자의 그늘에서 여자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즐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죠. 권력 남용을 즐기던 여인들은 장식이나 화장하는 데에도 지나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 장식에 쓰이는 용품들이 짹 나와요. 21가지나 나와요. 요즈음 "경기가 안 좋다, 돈이 안 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비싼 물건은 불티나게 팔려요.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사야가 지적했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시대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권력의 그늘에 숨어서 이렇게 치장하고, 사치하고 있으면 심판 날에 깨끗이 없애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피부 마사지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오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재미있어요. "목사님, 교인들은 돈이 안 돼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기뻐했어요. 혹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하면 교인들은 돈 쓸 데가 많아서 비싼 돈 쥐 가면서 피부 관리 하는데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은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돈 쓸 곳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잘 안 갑니다. 고가품이나 명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대신에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요즈음 파리 날리고 있다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말씀은 그 날이 오면 이렇게 좋아하던 것, 귀한 것, 아름답다고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전부 하나님께서 없애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24절도 보세요,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끔찍한 말씀이 없어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뿌려대던 향수 대신에 무슨 냄새를 맡게 해 주겠다? 썩은 냄새가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킵니다. 예쁜 허리띠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 다른 끈으로 채워 주시겠대요. 무슨 끈? 포로로 잡혀 가는 끈이에요. 가령 우리말에 우스개로 "야, 팔찌가 그렇게 좋더냐? 은팔찌 하나 채워줄게." 무슨 은팔찌요? 수갑을 차게 해주겠습니다. "팔찌가 그렇게 좋더냐? 내가 은팔찌 하나 채워줄게." 이런 뜻입니다.

여자들의 아름다움 중의 하나가 머리털이잖아요?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머리털을 대머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대머리는 인조 대머리입니다. 왜 인조 대머리예요? 대적이 그 머리를 다 밀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전부 죄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죄수 만들어서 옥에 가둘 때에는 남자와 여자와 모두 머리를 밀어 버린대요. 왜 밀어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 전부 대머리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화려한 옷은 굵은 베옷으로 바꾸어 입히겠다고 하십니다. 굵은 베옷은 초상집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왜 초상집에서 입는 옷을 입어요?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을 잃은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고운 얼굴에 수치를 당한 흔적을 남겨 주겠다고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자자한 흔적'이라고 했어요. 자자란 칼자국이란 뜻입니다. 그 고운 얼굴에 칼자국을 그어 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해요? 전쟁의 포로 됨으로 인해, 적에게 당하는 아픔으로 그런 흔적이 생기게 하겠다는 거죠.

옛날 우리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해요. 예쁜 배우들 포스터에 장난을 해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기운 흔적 하나만 하면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기운 흔적 만드는 것 어렵지 않아요. 짝 곁고 옆으로 작은 선을 가지런히 그어놓으면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져버려요. 곱다고 뽐내던 얼굴에 하나님께서 칼자국을 남겨 주겠다, 권력을 등에 업고 잘났다고 그렇게 뽐내는 여자들에게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예요. 왜 설교할 때 3장을 안 꿰고 4장을 붙여 읽었느냐? 하면 4장이 3장과 떨어지는 게 아니예요. 4장 1절에 또 그날에 그러죠? 같은 날이에요.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내가 생활비 다 댈 테니까 우리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이나 하나 낳게 해 달라는 겁니다. 남자의 시세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다 죽었으니까요! 전쟁 중에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야, 내가 이런 형편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러면 정신 나간 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지 모르지만 전쟁의 끔찍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일제가 처녀들을 다 잡아가니까 처녀를 무조건 시집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혼 풍습이 생겼다고 그러대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집을 보내 버린 거예요. 남자를 살 판 났죠? 행복이라고요? 참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매우 끔찍한 선고입니다.

선지자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심판으로 끝을 안 내고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은혜예요. 마땅히 심판으로 끝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안 내고 또 회복의 이야기를 붙여 놓았어요. 2절을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딸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여호와와 그의 딸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딸이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징계 받아서 황무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와 그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과 이 땅에 임하는 복은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딸이 뒤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여호와와 그의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그의 딸을 그 땅의 소산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싹인데 이것이 자라나서 맺는 열매를 '땅의 소산'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메시아가 땅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 줍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메시아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적, 인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예수님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이런 일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

야가 이 땅에 올 것임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4절을 봅시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 시며’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께서 씻기시며’ 입니다. 왜 이들이 거룩하게 되느냐 하면 주께서 씻기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주께서 씻기 시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뒤편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청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거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깨끗케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깨끗고 이야기 하면 깨끗하게 될만한 짓을 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도무지 안 해요. 그 많은 왕들 중에 선하다고 하는 왕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도 자세히 살펴보면 선하다고 해도 되겠나 싶은 왕들이 더러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을만한 선한 짓을 안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씻기시고 때가 됐으니깐 그들을 거룩하게 삼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 그렇죠? 딱 한 가지 경우 밖에 없어요. 이 놈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잘 하는 것도 아닌데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무조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다시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 밖에 없어요. 그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말 안 듣고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그래서 ‘부자 관계를 끊자’ 하고 끊어 버렸는데 그 자식이 돌아서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말 나오게 하는 자식은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를 않아요. 버티다 버티다 누가 지나요? 결국 부모가 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혹독한 징계를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 징계에 징계를 거듭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때가 됐으니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 하겠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 난 탓이 결코 아니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뭐가 그렇게 이쁘나요? 집에 신앙이나 부인이 볼 때에는 이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보니까 이쁘지 남도 다 이쁘게 여길까요?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리 이뻐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시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택했으니 비록 너희가 자식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 누가 하나님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십사고 요청을 했나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골방을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서도 아무 이유 없이 회복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오세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는 말씀이 5,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날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훗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때를 지내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예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사람 앞에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나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돌 판에 새겨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본 영화의 멋진 장면이 생각나서 그런가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돌 판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산에서 친히 말씀을 들려 주셨어요. 그것을 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그만 말씀하시고 우리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모세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시고 돌판에 새겨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구름으로 막아 놓고 그 속에 임하셔서 친히 음성을 들려 주셨어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러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가려가면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지만 범죄하고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범죄하고 떠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못해요. 우리가 죽을까 해서요. 손잡고 함께 즐기고 기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숨어 계시 수밖에 없어요. 구름 속에 숨어 “나 여기 있노라”고 티만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요약하면 끔찍한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하시다가 어느 순간 회복을 이야기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징계하겠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정사정 해도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깐요.

믿는다는 것은 참 쉽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해도 따러 가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정말 쉬운 것을 요구하셨어요. “믿을래?”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